

‘폭풍 성장’ 고종욱 “이제야 야구 하는구나 싶더라”

미리 보는 2017 라이징 스타

넥센 타선의 키맨 고종욱

지난 시즌 야구선수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잘할때 패턴·루틴 유지...슬럼프도 짧아져 수비 못한다고 생각 안 해...늘 좋은 생각만

붉은 닭띠의 해에 힘껏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스타들이 있다. 이제 막 재능의 꽃을 피워낸 어린 꽃들이지만 앞으로 KBO리그를 대활할 재목으로 꽃잎을 활짝 펼칠 라이징 스타들. 이들의 희망찬 날갯짓을 스포츠동아가 집중 조명해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 7번째 주인공은 넥센의 테이블세터로 활약하며 타선의 키맨 역할을 톡톡히 해낸 고종욱(28)이다. 2011시즌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전체 19번)에서 넥센에 지명된 지 4년 만인 2015시즌에야 사실상 첫 풀타임 시즌(119경기)을 치르며 이름 석 자를 알린 그에게 올 시즌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거듭나는 한 해라 중요하다. 고척스카이돔에서 마주앉은 그는 “2016년은 내가 야구선수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늦은 출발, 우여곡절의 연속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야구를 시작했다. 다른 선수들과 견줘 출발이 늦었다.
“운동은 좋아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여삼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우리 학교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말을 듣고 ‘야구를 한번 해볼까’ 생각했고, 여름방학 때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6학년 2학기 때 시작한 것이다. 출발이 늦었으니 당연히 경기에도 못 나왔다. 오히려 대치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했다.”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포지션도 외아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야구를 해본 적이 없으니 ‘내야로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외야수로 시작했다.(웃음)”
-고교 졸업 후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했다.
“사실 나는 야구를 하는 대학교가 없는 줄 알았다.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가야만 하는 줄 알았다. 대학교에도 야구부가 있다는 것을 고등학교 시절에 알았다. 고교 졸업 후 프로에 지명될 줄 알았다. 아버지께서 육성선수라도 도전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육성선수로 입단할 바에 야구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께서 ‘한 번만 더해보자’고 하셨다.”

■ 넥센 고종욱

▲생년월일=1989년 1월 11일 ▲출신교=역삼초~대치중~경기고~한양대 ▲키·몸무게=184cm·83kg(우투좌타) ▲프로 입단=2011년 넥센 3라운드 전체 19순위 ▲입단 계약금=8000만원 ▲프로 경력=넥센(2011)~상무(2012~2013)~넥센(2014~) ▲2016시즌 성적=133경기 타율 0.334(527타수 176안타), 8홈런, 72타점, 28도루 ▲2017년 연봉=1억2000만원



외야수 고종욱은 ‘무명의 요람’ 넥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스타다. 2011년 입단 이후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시즌 알을 깨고 나와 KBO리그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올 시즌에도 고종욱을 눈여겨봐야하는 이유는 그의 가파른 성장세 때문일지도 모른다. 스포츠동아DB

거의 포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양대학교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당시 1년 선배였던 이해창(ki) 형의 제안도 있었다. 대학 시절에는 계속 경기에 나가다보니 경험이 쌓이고, 매년 발전한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 프로에 입단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어떤가.
“벌써 입단한지 6년이 지났다. 그때는 프로의 벽이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했다.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다. 곧바로 주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업이라도 좋으니 1군에서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욕심을 버렸던 것이 실수다. 입단 첫해부터 독기를 품고 야구했다면 더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물론 처음 입단했을 때는 모든 것이 힘들었다. 타격을 할 때도 ‘왜 안 맞지’라는 생각뿐이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르니 더 힘들었다. 2011시즌 끝나고 바로 상무에 입대했는데, 친구 김대우(삼성)와 같이 갔다. ‘군대에서 불러줄 때가 가장 좋다’고 해서 바로 갔다. 결과적으로 일찍 입대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2016년, 야구선수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즌”

-2016시즌 중반에 ‘시즌이 끝나고 평가받겠다’고 했었다. 1군에서 풀타임을 뛰었고, 역대 연봉(1억2000만원) 진입과 WBC 대표팀 예비엔트리 선발까지 많은 것을 이뤘다.
“2016시즌은 내가 야구선수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즌이다. 나는 말바닥부터 시작해 한 단계씩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님과 코치님, 감독님께서도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다. 2015시즌과 견줘 슬럼프가 짧았는데, 심재학 타격코치(현 수석코치)님께서 야구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취침 시간까지도 야구 잘할 때의 패턴을 유지하라고 하셨는데, 작은 루틴까지 몸에 배니 밸런스가 깨지지 않더라. 노름수가 생긴 것은 2016시즌을 통해 가장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경기를 풀어나가는 노하우도 터득했다. 상무 시절에도 어깨 수술을 받아서 제대로 야구를 못 했는데, 2016년엔야 ‘이제 야구를 하는구나’ 싶더라.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지난해가 처음이다. 부상 탓에 더 많은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타격 기회가 줄어든 것이 아쉽지만, 2015시즌과 비교하면 지난해에 야구가 늘어난 것 같다. 그런 생각 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5월(타율 0.271)을 제외하면 꾸준히 월간 타율 3할대를 유지했다. 비결은.

“잘 먹고, 체력관리 잘한 것이다. 구단에서 선수들이 몸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이다. 실전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 선수를 보면 여름에 페이스가 확 떨어진 선수들이 많지 않았다.”
-비록 예비이긴 하지만, WBC 50인 엔트리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꽤 의미가 큰 일이 아닌가.
“막연히 (국가대표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그 꿈이 크진 않았다. 내 위치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맞다. 야구 잘하면 국가대표를 꿈꿀 수 있지만, 처음에는 야구도 못 하는데 그런 생

각을 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인데, 1억원을 모으고 싶다고 그걸 쉽게 되는데, 내가 잘하면 국가에서 알아서 불러줄 것이다. 그 정도로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것이 먼저다. 지금보다 야구를 잘하면 언제든 기회가 있지 않겠다. 한 번이라도 태극마크를 달면 그 자체로 가문의 영광이다. 더 잘하고 나서 욕심을 내보겠다.”

●“불안한 수비? 타격 장점 살리다 보면 향상될 것”

-애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수비에서는 본명 아쉬움이 남았다.
“나는 수비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고 그런 장면이 부각되니 수비를 못 하는 선수라는 인식이 있다. 그럴 때마다 좋은 수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하반신 내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나을 듯하다. 공격과 주루에서 더 발전하면 수비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비가 불안하다는 평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듯한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 ‘못 한다’고 말하면 그게 맞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렇게 못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비는 정말 많이 연습하면 결국 된다. 많이 뛰고, 연습하고 경험하면 실력이 향상된다. 나도 많이 뛰면서 경험을 쌓고 그랬으니 재작년부터 작년, 작년부터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 차근차근 수비력도 향상될 것이다. 타석에서 주자가 있을 때 부담을 가지면 결과가 좋지 않듯이 수비할 때도 공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끝이다. 꼭 타구가 오더라. 70%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하는데, 공이 와서 놓치면 다음에 잡고, 내일 잡으면 되고, 타격에서 만회하면 된다.”

-좌투수 상대로 약하다는 이미지는 확실히 떨쳐낸 듯하다(2016시즌 좌투수 상대 타율 0.325·166타수54안타).

“2015시즌에는 좌투수에게 약했다(상대타율 0.277). 그때도 좌투수를 상대로 잘 치다가 타율이 떨어졌다면 해결 방안을 찾았을 것이다. 오히려 2015시즌에 못 했으니 지난해에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연습했고, 그것이 통했다. 영상을 보며 상대 투수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타석에서 변화를 줬다. 타석을 최대한 넓게 쓰면서 대처법을 찾았다. 올해도 더 많이 연구하고 연습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

-변수에서 상수로 올라서야 하는 2017시즌이다. 목표가 궁금하다.

“타석에선 출루율을 높이고, 삼진을 줄여야 한다. 나는 노려서 홈런을 치는 타자가 아니다. 더 정교한 타격을 하다 보면 홈런도 늘어날 것이다. 수비와 주루 등 모든 면에서 확실히 발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해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지난해에 보여준 것이 있으니 올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타순도 중심타순이든 하위타순이든 관계없다. 나는 타석에 나가는 것 자체가 재미있다. 한 번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상위타순이 욕심나진 않지만, 팀에 꼭 필요한 타순에서 내 역할을 잘하는 것이 먼저다.” **고척 1 경선 기자 posterboy@donga.com**

지단의 박치기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2006년 독일월드컵 결승전)



Sports & Law Story

양종진 부장검사
법무부 범죄수사정책과장

마테라치, 귀속말로 지단 여동생 모욕
공연성 없어 형법상 모욕죄 성립 불가

프랑스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퐁피두센터는 1977년 건립된 이래 매년 100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다. 그런데 2012년 9월 퐁피두센터 앞에 좀 특별한 동상이 전시됐다. 운동복을 입은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가슴팍을 향해 머리를 들이댄다. 상대는 비명을 지르듯 입을 한껏 벌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바로 2006년 독일월드컵 결승전의 한 장면이다. 머리를 들이댄 남자는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 상대는 이탈리아의 마르코 마테라치다.

●지단의 박치기 사건!

마테라치는 경기 내내 지단을 따라다니며 전

담수비를 펼쳤다. 그러던 후반 46분경 중앙선 부근으로 뛰어가는 지단에게 마테라치가 팔을 걸었고, 지단도 몇 마디 응대했다. 이후 다시 마테라치가 뭔가 말을 하자 뒤돌아선 지단의 머리가 마테라치의 가슴팍을 향했다. 이탈리아 선수들의 거센 항의에 주심은 지단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월드컵이 끝난 뒤 사건의 대체적 전모가 밝혀졌다. 마테라치는 지단의 유니폼을 계속 잡아당겼다. 지단은 ‘셔츠를 원하면 경기 끝난 뒤 교환해준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마테라치가 지단을 자극하기 위해 수위를 높였다. 지단의 여동생에 대해 ‘매춘부’ 같은 단어와 더불어 인종차별적 말로 모욕했던 것이다.

축구는 다른 어느 종목보다도 경기장이 넓다. 또 경기 내내 선수들이 붙어 다니며 몸싸움과 신경전을 펼친다. 게다가 경기장 내 위치한 심판은 1명에 불과하다. 심판이 선수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공격수와 전담수비수 사이의 은밀한 신경전을 알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다보니 지단과 마테라치의 사례처럼 모욕적인 말이 자주 오

간다. 상대 선수를 자극해 평정심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다.

●마테라치는 모욕죄?

경기규칙으로 마테라치의 행위를 제재할 수 없었을까? 국제축구연맹(FIFA)의 경기규칙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 ‘욕설이나 무례한 언어(abusive, insulting language)를 사용한 경우’ 퇴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테라치는 경기 후 FIFA로부터 2경기 출장정지와 약 4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경기는 이미 끝났다. 이탈리아가 승부차기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만약 지단이 퇴장당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을까? 프랑스 팬으로서선 아쉬우고도 억울할 것이다. 원인 제공자가 마테라치인데, 거꾸로 지단이 퇴장을 당했으니...

이 사례와 같은 경우 흔히들 정당방위를 떠올린다.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심정적으로는 지단이 억울해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 마테라치가 지단의 여동생에 대해 언급한 것이 형법상 모욕죄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인 지네딘 지단(왼쪽)은 2006 독일월드컵 결승에서 만난 이탈리아 마르코 마테라치와 신경전을 벌인 끝에 머리로 상대 가슴팍을 가격했다. 그리고 2012년 프랑스 퐁피두센터 앞에는 둘의 장면을 묘사한 동상이 세워져 정정당당한 스포츠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출처 | ESPN

가 될까? 결론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마테라치와 지단 사이에서 은밀히 이뤄진 대화이다 보니, 공연성(公然性)이 없기 때문이다. 즉, 마테라치가 다른 사람을 듣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지단은 정당방위?

그렇다면 지단은 정당방위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형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

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범죄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테라치의 행위는 죄가 되는 것과 별개로 지단 여동생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다. 문제는 박치기가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인지 여부다. 결론적으로 지단의 박치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박치기가 모욕죄 발언에 대해 일반적으로 당연시되는 대응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기본정신은?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정당방위 규정을 갖고 있다. 다만 법률이 제정된 배경이나 환경이 달라 적용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우리보다 정당방위가 넓게 인정된다. 총기의 자유소유, 서부시대 이래로 형성된 ‘내 몸은 내가 지키다’는 자위권(自衛權) 관념 등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국이나 ‘무엇이 정의인가’라는 기본관념은 같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나라별로, 종목별로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정당당’이라는 스포츠의 기본정신만은 종목과 나라를 떠나 모두 똑같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